

국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이버다임은 정보 관리의 혁명을 이끌어냈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젊음의 패기와 외국기업에 당당히 견줄 만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을 거듭해 온 현석진 대표에게서 성공의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끝없는 도전으로 일구어낸 디지털경영의 힘

사 이 버 다 임 _ 현 석 진 _ 대 표

젊음의 패기로 벤처에 도전하다
문서관리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이버다임의 현석진 대표. 스물아홉의 나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그는 평사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표의 자리에 오른 드문 케이스다. 포항공대 박사과정을 밟을 무렵 우연히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산학연 프로젝트에 참가했다가 실험실벤처로 창업까지 하게 된 것이다.

“1998년 포항제철과 포항공대가 손을 잡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중요한 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거나 일일이 출력해서 한데 모아두는 게 고작이었으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죠.”

외국기업들에 의해 시스템이 막 도입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현대표는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연구에 몰입했다. 특히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선배나 동기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면서 최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연구 인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결국 포항공대 ‘벤처 1호’가 탄생했고, 연구원 구성에 구심점 역할을 한 현대표에게는 최고경영자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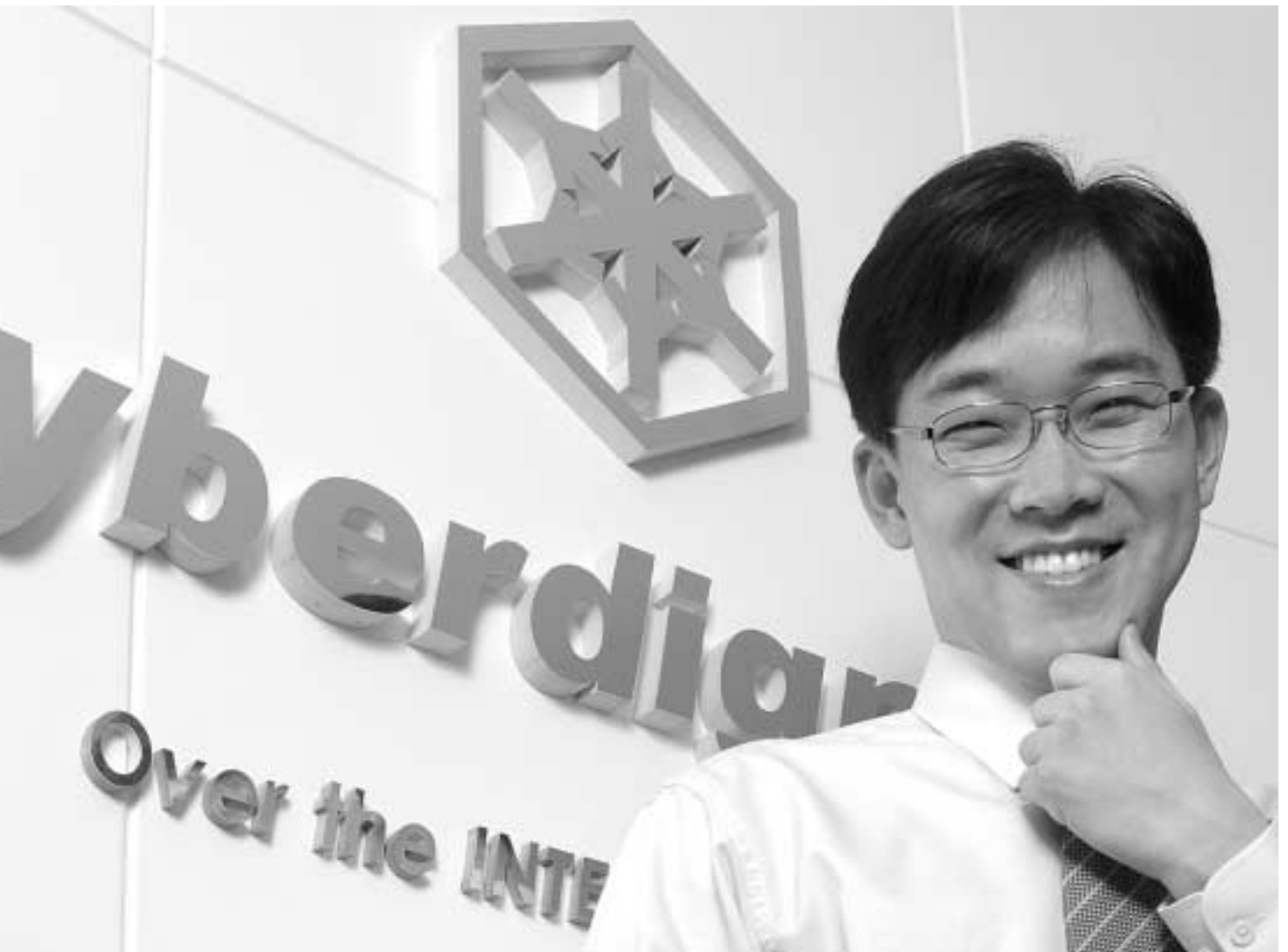
애초에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창업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사

이버다임의 행보에는 운이 따라주었다. 창업을 하자마자 포항공대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돼 바로 입주할 수 있었고, 6개월 뒤 서울로 무대를 옮긴 후에도 때마침 불기 시작한 벤처열풍 덕분에 각종 혜택을 누렸다. 물론 고생도 적지 않았지만 젊디젊은 현대표로서는 그마저도 한번쯤은 도전해볼 직한 모험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보여주는 이러한 벤처정신은 사실 역사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화와 지식혁명을 이룩한 주역인 기업인들의 활약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현대표로서는 기업이 가진 사명감이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 기업이 안고 있는 역사적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깊이 통감하기에 자신과 직원들을 더욱 재직질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창업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 어느 유망한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았어요. 마침 영업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고전하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하직은 한계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로 정중히 제의를 거절했죠.”

연구원 출신이던 그에게 영업이란 쉽지 않은 과제였고, 다른 기업의 인수 제의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스스로의 능력을 한정짓고 싶지 않았다는 그는 벤처인 특유의 패기와 기업가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 고비를 당당히 극복해 내



고야 말했다.

디지털 경영의 파수꾼이 되다

사이버다임이 세상에 내놓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은 기업들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시키는 대혁명을 일으켰다. 더 이상 종이에 출력할 필요 없이 파일 자체로 관리가 가능해진 것. 모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인 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이 시스템은 기업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게다가 100% 자바로 구현돼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산 시스템과의 차별화에도 성공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요가 늘기 시작한 문서관리시스템은 점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됐고, 이후 지식관리시스템(KMS), 자료관시스템, 6시그마포털시스템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이처럼 조직 내에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시킨 사이버다임의 기술력은 디지털경영을 실현화했을 뿐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수꾼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IT 투자에도 로드맵이 있더군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정착 되고 나니 문서 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러한 요구에 맞춰 지식

관리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자료관시스템이지요.”

계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한 결과 개발된 4가지 시스템은 ‘EBAS시리즈’라고 이름 붙여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화평가 지표로 지정되면서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지난달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연말아 사이버다임의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미국, 요르단 등 해외수출의 위업 달성은 사이버다임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내 문서관리 업계 최초로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시장을 장악한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는 당찬 포부로 문서관리 분야에 한 획을 그은 사이버다임의 현석진 대표. 오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는 그의 말이 유독 가슴에 큰 울림을 남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어 강소국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부진 각오 또한 기대를 걸게 만든다.